

열린극장 27

# 돼지와 오토바이

이만희 · 작 / 황성현 · 연출  
김영림, 배진만, 백현주, 정은수, 정화선 · 출연

'96. 9. 3 ▶ 10. 6

평일 늦은 7:30, 토 · 일 · 공휴일 늦은 4:30,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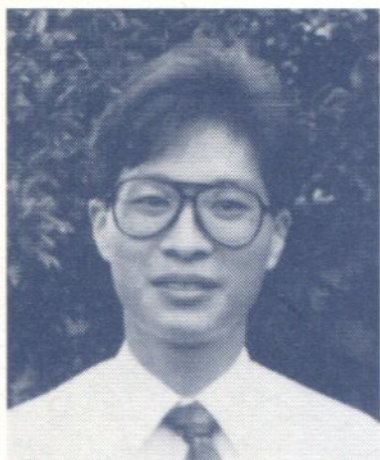
매주 월요일, 추석(9/27)은 쉽니다

열린소극장 ☎ 553-9475

전화예매를 하시면 먼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소극장은 명륜동 전철역 맞은편에 있습니다.



## 막을 올리며



참사랑 / 이만재  
대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준비하는 극단 열린무대의 이번 정기공연은 단원들뿐만 아니라 열린무대를 어느정도 아는 관객들에게도 의미가 대단할 것이다.

새롭게 거듭 태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겪는 고초도 대단할 것인데, 얼마전 워크샵 공연 「우리들의 이야기」에 이어 정기공연인 「돼지와 오토바이」를 뜨거운 여름날에 단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또다시 준비한 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과연 열린무대는 연극에 제대로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광기와 건강한 의식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극단 열린무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창작에 대한 열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기획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었으면 한다.

아무리 좋은 작품일지라도 관객이 보러오지 않는다면 공연행위의 의미는 퇴색되어 버릴 것이다.

많은 관객들이 보러올 수 있는 연극, 항상 감동이 물결치는 연극, 진실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향해가는 연극 등등 이러한 연극을 만들 수 있는 열린무대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며, 좋은 연극을 볼 수 있게 해준 열린무대 단원들과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출 / 황성현

이제 시작이다

내가 처음 연극을 시작한 것이 1984년 대학에서였다. 그 이후, 연극계 언저리를 배회한 지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다. 아니지,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이라 했으니, 13년이라는 연극의 시간들이 쌓여졌으리라.

그러나 정작 나 자신에게 연극에 대한 그 무엇이 쌓여져 있는지 나는 모르고 있다. 무엇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지...

그동안 나의 연극에 대한 천착은 맹목도 있었고 무조건도 있었다. 그저 연극이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연극이란 더 이상의 맹목도 꿈도 아닌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연극의 언저리가 아닌 연극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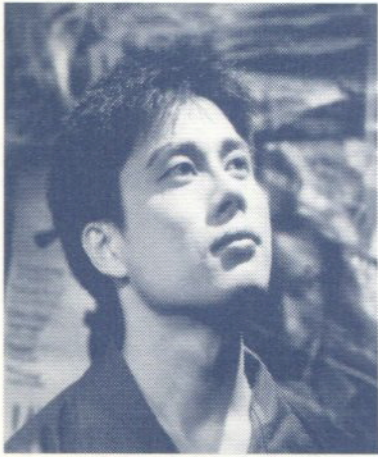
여기서 부터다. 나의 연극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으면 싶다. 돌아서면 잊혀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욱 새록거리는, 그래서 다시 공연장을 찾지 않으면 안될 그런 연극을 하고 싶다.

한 편의 좋은 연극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나의 믿음을 나는 지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확인할 것이다. 연극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음을... 바로 여기서 부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오늘도 지하실에서 고통스럽게 땀을 흘리고 있는 나의 동료들과 선뜻 작품을 내어주신 이만희 선생님께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 무대에서



사내 / 배진만

인생을 사노라면 한 번쯤 안 떨어질 순 없거든요. 그래요, 상처는 이미 난 거야. 그 상처를 스스로 아물게 하고 다시 날아보겠다는데...

아직 얼마 살아보지도 못했지만 세상은 언제나 날 힘들게 한다. 내 주위를 둘러싼 것들과 사람들, 그 사이에서 발버둥치다보면 어느새 나는 어디로 가 있는지 알 수 없고 껍데기만 남아 허둥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괜히 불안해 진다. 원인 모를 불안에 내 영혼이 잠식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 혼자 떨려진 것은 아닌지. 혹은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지. 가끔씩은 사람들을 원망한다.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때문이라고. 당신들이 날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깊은 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역시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금새 깨닫게 된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나는 아름답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찌그러지고, 부패하고, 썩어문드러진 세상을 평등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하는데...

아직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 삶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는데 허구한날 죽음에 얽매어 살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죽음을 잊고 살 수는 없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 있다는 것 아닌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암담함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소중한 것 아닌가.



처 / 김영림

정말 힘이 든다.

연기라는 것이 삶을 대변하는 것이니 오죽하겠는가만은 정말이지 어렵다.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만큼 삶을 표출해내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처의 지적이고 조용하면서도 우아한 성품, 그러면서도 자식의 기형에 슬픔을 주체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과 결국 터트려버린 슬픔의 응어리, 하지만 자식을 위해 죽음의 의식을 준비해야만 하는 가혹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기탁해 보기도 하고 끝내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했던 현실을 떠나 자식의 품으로 가야만 했던 최후의 선택.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방향을 스스로 벌주어야 했던 슬픈 여인. 나는 이역을 소화하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나를 깨부수고 내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처를 끌어내고 해야만 했다. 어떻게 되어질지...

한번 연습하고 나면 많은 기들을 소모해야 했고 그로 인해 가슴에 뭔가가 차오르고, 하지만 터지지는 않는 미어지는 가슴을 느껴야만 했다. 몽짜의 죽음을 준비하기전 사내와의 싸움장면을 연습하고 나면 슬픔의 응어리가 가슴께까지 차올라 터트리고 싶은데도 터지지는 않아서 미칠 것만 같았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울고 싶은데도 가슴이 막혀 맘대로 되지않고 그러면서 가슴은 답답하고... 지금도 간혹 몽짜의 사진을 보았던 것이 머리 속에 남아서 그 모습이 아른거리면 가슴이 이상해진다. 그 모습이 얼마 만 큼이나 잔상으로 남아 가슴을 쓰리게 할 것인지...



처 / 정화선

어떤 사람이 골동품 가게 안을 두리번 거리다가 오래되어 보이는 도끼를 하나 발견했다. "저기 있는 도끼는 꽤 튼튼하고 오래되어 보이는군요" 그가 주인에게 말했다. "잘 보시는군요. 저건 조지 워싱턴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가게 주인이 대답했다. "사실입니까? 정말 오래되었군요." 가게주인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동안 손잡을 세번이나 갈아 끼웠고, 날도 두 번이나 바꿨는 걸요."

이 글은 '뱀에게 신발신기기'라는 책의 골동품이라는 제목의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도끼는 손잡이와 날을 계속 갈아 끼운다. 사실 모든 것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영원히 동일하게 남아있는 그 무엇이 있다.

우린 한때 어린아이였다. 그 당시의 것 중에서 지금 무엇이 남아 있는가? '기억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 이 글의 골자이다.

오늘 관객들이 오셔서 본 공연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골동품 중 하나가 되었으면 싶다. 나에게서는 더할 수 없는 골동품일 것이다.



## 무대에서



1인 8역 / **백현주**

대변에서...  
수심은 생각보다 얇았어. 바람에 그 바다는 미친 것처럼 흔들렸고 이끼끼 밀을 그대로 보여줬지, 그 바닷가에서 극장 동료인 형은 아나고 한사라, 초고추장 한종지에 취해 길을 잃고는 한길가에 우두커니 주저앉아 '날 버리고 간 나쁜년놈들...' 을 기다리고 있드라구. 나? 난 뭘하고 있었느냐고? 그런 그 형의 등뒤에 대고 "이 병신아"을 외쳐대고 있었지만, 사실은 기름과 원गत 잡쓰레기로 썩어 문드러진 대변 앞바다보다 더 흰 밀을 내다보이는 건, 바로 그 혼한 '나 자신의 한계'란 것이었지. 자꾸 잊어버려. 거 있잖아. 시작의 그 뜨거운 다짐과 명백하기만 했던 정당한 사유들 말이야. 지하철 22개역 2구간, 왕복 44개역 4구간. 지하연습실에서의 윗몸일으키기 35개, 팔굽혀펴기 25개, 3분간 고태치기, 1시간 춤연습과 3시간여의 작품연습... 이런 하루속에서 많은 것들이 잊혀져가지. 휴. 그러던 어느날 문득 93년 여름의 어느공연 팸플렛에 적었던 배우한마디가 생각이 나지 뭐야? '단지, 시작일뿐이다!' 후후후, 아직은 겁이 없을시절... 도대체 이놈의 시작이란 건 언제 끝나려는건지. 본게임엔 언제 들어서려는지... 들어서기는 서려는지... 친구야, 삐삐 좀 쳐주라. 외롭다야.

가장 어려운 것은 물론 나자신과의 싸움이겠지만, 재정난과 인력난이라는 극단의 고질적인 어려움으로 더 빨리 늙는 것 같은 선배의 뒷모습을 보는 것 또한 참 고통스럽다.

형! 우리 아직 끝나지 않을 잔치를 하고있는 것 맞지?  
그래. 그래서 우린 행복한거야. 임마. 화이팅!



1인 8역 / **정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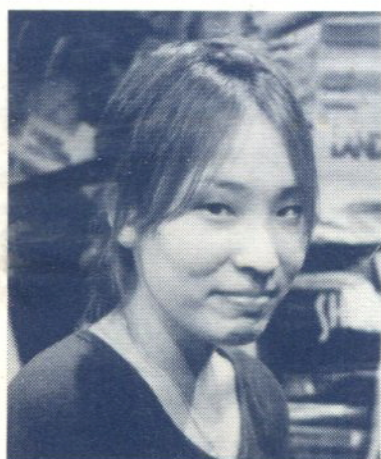
이번 정차할 역은 괴정, 괴정.....  
덜컹거리는 지하철 안에서 난 이 글을 쓰려한다. 솔직한 자기고백이라..... 지금 난 망설이고 있다. 무슨말을 할 수 있을까. 이 흔들거리는 지하철 보다 난 더 흔들리고 있다고? 누군가가 묻는다. '왜 연극을 하지?' 연극이 그렇게도 좋으니? 왜? 그럼 난 그냥 웃어버린다. 어떨때 '그냥'이라고 무심하게 내뱉기도 하고.....

다정한 사람과 한잔술 나누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나고 싶은날도 또 어떨때 아주 작은것 하나에 감사드리고, 말 한마디, 작은 몸짓하나에 내 욕심 지워버리고 다시 태어나곤 한다. 미완성이기에 때론 아름다운 혼돈.....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고 싶다. 가장 자신답게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이번 정차역은 명륜동, 명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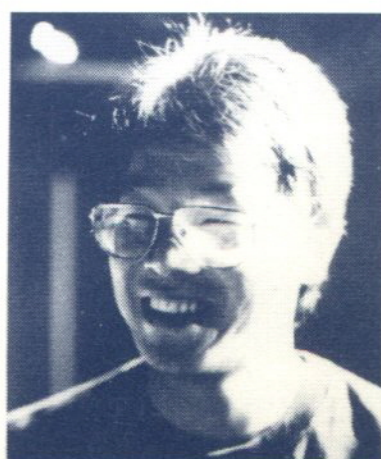
내 일상속에 눈부심 하나, 그 눈부심 속으로 이젠 주저없이 걸어 들어가야 한다. 내가 날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곳.

누가 뭐라해도 난 연극인이고, 그곳엔 삶을 사랑하는 우리가 있기에...

## 무대뒤에서



음향 / **최숙희**



무대장치 / **서석현**

· 도와주신 분 / **한영화** (춤패 배김새단원)



## 작가소개

### 이 만희(李 萬喜)

1954년 충남 대천에서 태어나 휘문 중고를 거쳐 동국대 인도 철학과를 나오다.

졸업 이듬해인 '79년 동아일보 장막희곡 공모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미이라 속의 시체들'로 문단에 데뷔한 이래 '문디',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돼지와 오토바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처녀비행' 등을 연극 무대에 발표하면서 작가부재의 한국연극계에 신선한 충격과 신바람을 몰고오다.

월간 문학상, 삼성도의 문학저작상, 서울연극제 대상 및 희곡상, 백상예술상 희곡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불 좀 꺼주세요'는 18개월 장기공연에 14만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절찬리에 공연되었다.

## 작품해설

본 작품은 1993년 서울 북촌 창우소극장(대표 허 규 국립극장 극장장)의 개관 기념 공연으로 3월~6월까지 4개월간 장기공연 되었던 작품이다.

어린시절의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내가 한 여인을 만나 사랑의 결합을 한다. 그러나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몽짜치기'라는 기형아이고 그들은 아기를 죽인다. 그로인해 사내는 2년형을 살다 나오고 그 사이에 아내는 자살을 한다.

작품은 현재진행과 과거회상이 교차된다. 감옥에서의 면회, 병원에서의 고민, 고아원 시절 원장수녀님의 이야기, 판동처의 등장, 재판 장면 등 과거의 이야기와 경숙과의 현재가 진행되는 사이사이에 사내와 관객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진솔하고도 자유로운 자기고백이 이어진다.

자식을 죽였다는데 대한 죄의식과 고아로서 겪어야 했던 피해의식은 전처와 현재의 애인인 경숙과의 이야기속에서 갈등을 겪는다. 결국 사내는 이 험난하고 암담한 세상에서도 삶은 그 자체로서 가치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희망을 갖아가기만 한 과거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한 사내의 고뇌와 선택이 이 이야기의 중심축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옛 제자와의 결혼을 선택해야 하는 그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의 편린들은 그를 주저하게 만들고 자꾸 움츠러 들게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재와 과거의 교차 진행을 통해 사내의 죄의식과 피해의식을 드러냄과 동시에 사내의 심경변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경숙과 처를 비롯하여 사내가 맞닥뜨리는 인물들은 다들 건강하다. 그것은 삶의 진실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경숙, 의사, 간호사, 판동처, 변호사 따위의 1인 다역의 의미는 사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둘러싼 사회의 한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코 깊이 않은 인생살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의미 부여를 하고 공공 가슴속에 묻어두고 그 속에 얽매어 살아갈 수는 없다. 어떤 일들은 잊어버리고 이겨내면서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맞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채워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극중의 '씨돼지' 처럼 습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흡사 '낙상매'가 되어 깨지고 부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늘 비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이 작품은 굴절된 한 사내의 인생 유전을 통해 삶과 사랑에 대해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다.